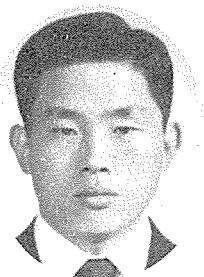


유럽공동체(EC)의 낙농산업



홍 윤 호

필자 약력

- △ 경기 김포에서 태어남
- △ 전국대학교 축산가공학과 졸업
- △ 농업협동조합 근무
- △ 서독 라인-루르 낙농회사 기술연수
- △ 서독 기쎈대학원 졸업
- △ 영양학박사
- △ 서독 뮌헨대학 낙농연구소에서 연구

1. 머릿말

유럽낙농업은 유럽인들이 그곳에서 정착생활을 시작한 때 부터이므로 매우 장구한 역사를 갖고 있다. 이 낙농업은 오랜 시간을 두고 발전되어져 현재는 매우 안정되고 과학화 된 기간산업의 하나로 농민소득과 국가경제에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민영양 및 보건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유럽공동체는 한국으로부터 상당히 먼 곳에 위치하고 있으나 교통통신수단의 발달로 그 공간적 거리는 점차 좁혀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우리나라와 낙농제품의 수출입과 기술협력 등으로 그 관계는 더욱 밀접해지고 있다고 하겠다. 이런 기회에 본난에서는 유럽공동체 농업경제정책의 배경과 낙농산업의 현황 및 그 내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유럽공동체 결성의 역사적 배경과 목표

유럽공동체는 서독, 포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룩셈부르크 및 네덜란드 등 6개국 사이에

체결된 “유럽경제공동체를 설립하는 조약(로마조약)”이 1958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면서부터 성립되었다.

이러한 공동체의 성립에는 유럽통일이라는 원대한 이상이 배경을 이루었으며 당시 미·소의 대립하에서 전후 유럽의 경제를 자유경쟁체제에 입각하여 재건해야 한다는 현실적 필요성이 더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즉, 유럽공동체는 경제수준이 대체로 비슷하고 경제구조에 있어서도 동질성이 크기 때문에 관세철폐에 의한 분업화의 촉진과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하여 지역내의 생산력을 충분히 이용함으로써 회원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여 결성된 것이다. 이 유럽공동체는 몇번의 진통 끝에 1968년에는 관세동맹을 완성하고 이어서 가장 큰 관건이었던 공동농업정책의 실시를 달성하게 되어 확고한 기반을 확립하였다. 또한 1978년 3월 이후에는 회원국의 통화가 비가맹국의 통화에 대하여 유동환율이 적용되는 준교정환율제도인 유럽통화제도(EMS)가 시행되어지고 있다. 1973년에는 영국, 아일랜드, 덴마아크 등을, 1982년에는 그리스를 새 회원국으로 받

아 들여 10개국으로 확대되어서 그 경제규모나 무역량에 있어서 가히 세계경제의 중심지로서 국제경제무대에서의 지위를 확보해가고 있는 것이다. 1979년 부터는 회원국들이 선출한 434명으로 구성된 유럽의회(EP)가 구성되었으며 매년 3회씩 개최되는 공동체의 정상회담과 함께 현안문제에 대한 의견교환과 상호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동시에 정치적인 통합에 한 발자국 더 접근하고 있다.

3. 유럽공동체의 농업 정책

유럽공동체의 각 회원국들은 원래부터 대체로 고도로 발전된 선진공업국들로서 국토 및 인구의 크기에 따라서 각국간에 경제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소득수준이나 산업구조 등은 아주 유사한 상태에서 출발하였고 위태로운 이해대립은 있었으나 공동농업정책의 구현을 보게 되었다. 이는 하나의 보호주의적인 농업정책으로 특징지울 수 있으며 그 목적은 농업생산성의 향상, 농가의 소득증대, 농산물시장의 안정화, 농산물공급의 확보 및 일반소비자에게 적정가격으로 농산물을 공급함에 있다. 농산물의 공동수입정책도 한 예로 들 수 있는데 이는 농업생산의 비중이 크지만 국제경쟁력에서 크게 뒤떨어져 그 보호가 강력히 필요한 일부 국가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유럽공동체의 농산물에 대한 무역정책은 가격기전을 이용하여 부과되는 과정금과 수출보조금의 지급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그 비용은 유럽공동체의 특별 기금의 하나인 유럽농업지도보증기금(EAGCF)에 의하여 충당된다. 생산원가가 높은데도 많은 양의 유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것은 이 수출보조금에 크게 힘입은 결과이다. 또한 유럽공동체당국은 농산물가격이 지역내 생산과 농민의 소득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최저가격인 보장가격(Intervention Price) 이하로 하락할 때는 지정된 공공기관을 통해 보장가격으로 문제의 농산물을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럽공동체의 낙농생산구조는 영국과 네덜란드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영세한 경영규모인데 전체 낙농제품은 지역내의 소비를 훨씬 상회하는 과잉생산이 되고 있다. 특히 버터의 과잉재고는 소위 “버터의 산”이라고 일컬어 질 만큼 다량이어서 한 때는 재고처리에 부심하기도 했으며 1980년과 1981년도에는 소련에 판매하여 버터의 재고량을 대폭 줄인 예도 있다. 분유 또한 생산과잉으로 남아 둘기 때문에 이러한 과잉유제품을 처분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이 실시되고 있다. 즉, 보조금을 지출하여 지역외 제3국에 수출을 한다거나 개발도상국 또는 식량부족국가에게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원조물자로써 증여하기도 하며 지역내의 축산업자들에게 사료용으로 싼 값에 공급하기도 한다. 또한 생산을 억제하기 위해 생산목표량도 설정하고 있는데 만일, 우유생산량이 목표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량에 대한 매상가격을 억제하는 제도도 한 좋은 실례로 들 수 있다.

유럽공동체는 아프리카, 카리브해안 그리고 태평양지역의 구식민지국가들(AKP)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농산물의 95%까지 관세 없이 회원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수입품목으로는 다양하지만 식육류를 비롯하여 과일류, 채소류, 식용유 및 커피와 카카오 등이 대표적이다.

나아가서 대부분의 식료품가격은 유럽공동체에서 결정되고 지역내에서 모든 농축산물의 거래가 자유로이 이루어지고 있어 소비자들의 선택의 범위가 크고 따라서 국민들의 식단 또한 다양화내지는 국제화 되어지고 있다.

4. 유럽공동체의 낙농업 개요

표 1과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유럽공동체는 총면적 약 159만 km²에 인구는 약 2억 7천만명이며 젓소의 총수는 2,870만두인데 이는 국민 약 10인당 젓소 1마리꼴이 된다. 각 회원국별

표 1. 유럽공동체국별 면적 및 인구

1982년도 현재

국 가 별	면 적(천ha)	총인구(천명)	농업인구(천명)	총 인구에 대한 농업인구의 비율(%)
벨기예 / 룩셈부르크	3,310 / 3	10,230	301	2.9
덴 마 아 크	4,307	5,135	344	6.7
프 랑 스	54,703	53,931	4,442	8.2
서 독	24,853	61,666	2,326	3.8
그 리 스	13,194	9,750	3,554	36.5
에 이 레	70	3,345	679	20.3
이 탈 리 아	30,123	57,197	6,038	10.6
네 덜 란 드	3,728	14,246	733	5.1
영 국	24,482	56,273	1,097	2.0
합 계	158,773	271,773	19,514	평균10.7%

자료 : FAO : FAO Year Book 1982

젖소당 년간 비유량은 표 2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그리스가 1,931kg으로 가장 낮고 네덜란드의 경우 5,224kg으로 제일 높으며 유럽공동체의 년간 평균은 3,948kg이 된다. 이 비유량은 육종 및 사양개선등으로 계속 증가되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년간 총 원유생산량은 114,144,000MT으로 이는 전세계 생산량의 26.2%에 달한다. 이 생

산량은 특수한 기후조건의 제한, 예를 들면 천재지변 등이 없으면 년평균 약 2%의 증가를 보일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낙농업의 경영규모는 비교적 영세한 편이고 회원국별 차이가 있어 이탈리아의 경우 가장 영세하여 농가당 평균 9두이며 영국이 53두로 가장 많다. 또한 낙농가당 평균 사육젖소수는 14두인데 점차 그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경향을 보

표 2. 유럽공동체 국별 유우두수 및 주요 유제품의 년간생산량

1982년도 현재

국 가 별	젖소사육두수 (천두)	년평균비유량 (kg)	총원유생산량 (천MT)	버 터 (천MT)	치 즈 (천MT)	분 유 (천MT)
벨기예 / 룩셈부르크	1,037	3,909	4,054	110	47	359
덴 마 아 크	1,010	5,050	5,100	120	235	125
프 랑 스	10,026	3,421	34,300	605	1,190	1,339
서 독	5,445	4,656	25,350	540	851	901
그 리 스	373	1,931	720	7	176	
에 이 레	1,458	3,443	5,020	135	60	163
이 탈 리 아	3,643	2,910	10,600	75	615	3
네 덜 란 드	2,412	5,224	12,600	230	482	541
영 국	3,285	4,992	16,400	205	250	339
합 계	28,689	평균3,948	114,144	2,027	3,906	3,770

자료 : FAO : Monthly Bulletin of Statistics 6, Feb. 1983.

이고 있다.

주된 우유생산국들로는 프랑스, 서독과 영국 등이지만 우유생산이 농업경제의 특수한 중요성에서 보면 엔마아크와 네덜란드를 들 수 있겠다. 유럽공동체의 농민들은 농업의 다른 분야 즉 곡류재배를 비롯한 비육우사육, 양돈, 양계, 원예 또는 특용작물재배등과 겹업하고 있기 때문에 업종간 상호보완관계를 유지하여 안정된 농가소득을 유지하고 있다.

주요한 낙농제품들의 생산량들을 표 2에서 보면 1982년도에 버터는 2,027,000MT이고 치즈는 3,906,000MT이며 분유는 3,770,000MT으로 되어 있다. 유럽공동체의 낙농제품들은 위에 열거한 것들 이외에도 시유, 가공유 및 연유등을 비롯하여 요구르트, 케휘어(Kefir), 쿠미스(Kumiss), 발효버터밀크(Cultured butter milk), 발효크림(Cultured cream), 신우유(Sour milk)와 신크림(Sour Cream) 등의 발효제

품들과 아이스크림, 밀크아이스, 아이스, 크림아이스, 카스타드(Custards), 쇠버트(Sherbert), 캐서타(Cassata) 등의 냉동유제품들이 계절에 관계없이 생산되고 있으며 생치즈(Quark=Quarg)와 이를 이용한 간식용 제품들의 생산도 증가일로에 있다. 특히 호상의 요구르트나 생치즈에 크림과 과일, 초콜렛 또는 바닐라등을 혼합 또는 첨가한 데저트(Desserts)류와 푸딩류의 생산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우유의 조성성분에서 분리된 제품들-카제인, 유청, 크림류, 유당 및 카제인과 유청을 동시에 가열 침전시킨 공침물(Comecipitate) 등과 이들의 유도체들의 생산도 활발하다. 기타 저장, 운반, 이용면에서 편리한 치즈분말, 버터밀크분말, 유청단백질분말과 아이스크림혼합분말등의 생산 역시 증가되고 있다.

(다음호에 계속)



無条件 同調者는 幹部될 資格없다

會社 안에서는 개인으로서만 하는 일은 적다. 2 사람 이상의協力에 의하여 목적을 달성하지 않으면 안될 일이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자기의 부하가 팀웍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것이 그 사람을 전부에 동용할 경우 필수조건의 하나다.

첫째, 자기의 守備범위를 지

킬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硬式 테니스의 더플즈의 경우에도 팀웍이 취해져 있나 없나나 勝敗를 가름한다. 팀웍은 먼저 각기 제 자신의 수비 범위를 지키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 前衛가 자신의 수비 범위의 공을 잘 막지 못하고 미스를 내고보면, 後衛는 전위의 수비 범위에 정신을 쓰며 커버해 내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는 동

안에 이번엔 자기의 미스를 막아 내지 못하게 된다.

둘째는, 단순한 同調主義者가 아니고 個性이나 創造성이 있는 사람이 팀웍에 소용된다. 개성이 없고 자기의 아이디어가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 무조건 따라가는 동조주의자는 팀웍을 위해 소용되지 않는다.

세째는, 友情과 信賴感이 두터운 사람을 찾으라. 동료뿐만 아니라 상사나 부하화도 스무드한 것이 좋다.

- 占部都美 著「指導力」에서 -